

정보미디어부(정보매체혁신부) 신설 논거

-글로벌 경제와 한국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여전히 미국, 독일, 일본의 기술경쟁력 높고, 중국의 양적 성장과 함께 과학기술 투자규모와 역량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선진국의 고가고품질과 중국의 저가고품질 사이에서 한국은 중가중품질에서 고가고품질로 신속히 전환해야 할 상황임

-창조경제론

박 당선인의 창조경제론에서 개인의 상상력과 창의성과 정보통신기술을 포함한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운영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시장,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략은 시의적절한 것임. 창조경제를 구체화하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 있다.

-정보통신콘텐츠와 일자리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는 대부분을 정보통신콘텐츠(ICC)를 기반으로 하거나 직간접적으로 활용하는 분야에서 나오고 있다. 따라서 ICC가 창조경제의 일자리창출의 중심축이라고 볼 수 있다. 향후 5년 중단기적으로 200백만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는 새 정부에서는 ICC 정책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2030세대의 에너지

한국의 2030 세대는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원주민(Digital Native)이다. 이들의 자유로움과 상상력, 도전의식, 글로벌인식 등은 분명 기성세대와 차별화되고 있다. 스마트 미디어에 친숙한 2030세대의 에너지를 창조경제와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로 이끌어내야 한다. 애플, 구글, MS, IBM 등 세계적 정보통신기업들도 한국의 젊은 층의 에너지와 역량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새 정부에서 2030세대의 에너지를 창조경제의 창업과 혁신으로 이끌어가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스마트 라이프 확산

스마트 미디어로 24시간 전세계로 연결된 세상, 손안에 모바일기기로 상상할 수 있는 수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세상을 지키고 가꾸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ICC의 경제산업적 중요성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중요성도 매우

크다. 정보보안, 프라이버시보호, 인터넷윤리, 정보격차해소, 인터넷중독 예방 등 스마트 라이프가 확대되고 있는 세상에서 정부의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다.

-2030세대의 정서에 대응

이번 대선의 결과를 보면 기성세대와 차별적인 2030세대의 새로운 정치사회적 지향과 정서를 확인할 수 있다. 새 정부가 이들의 지향과 정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전문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정부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고착화되고 확산될 수도 있다. 이들의 정서가 2008년 촛불시위와 같은 행동으로 나타나면 향후 5년의 국정운영에 큰 애로로 작용할 수도 있다. 공약에서 약속한 정보통신 전담조직 신설이 무산되는 것이 2030세대가 새 정부를 Old 하다고 규정하고 등을 돌리는 단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2030세대의 에너지를 창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스마트세대와 스마트 라이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지식을 가진 정부조직이 필요하다.